

靑 불통 인사에 커지는 퇴진 요구

야 “민심 무시” 철회 촉구

새누리 내부 갈등도 증폭

혼돈의 정국 갈수록 꼬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최악의 혼돈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및 참모진 개편을 통한 정국 수습책에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가뜰이나 안보·경제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불통인선’을 감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으나 비박(비 박근혜) 진영을 중심으로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국면과도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3일 박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야당에 대한 국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기용한 것이 오히려 감정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 인사를 단행

한 것”이라며 “야당은 커녕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국면전환용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동안 대통령 하야와는 거리를 뒀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꼭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의 정국 상황을 단번에 풀어낼 ‘묘수’는 정치권 자체적으로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야가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본

인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술한 고백과 검찰에 직접 본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결자해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모든 것을 내려 놔야 어느 정도의 민심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최소한의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 주류 일각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성향과 여권 핵심부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박 대통령과 민심의 힘 겨루기 결과에 따라 정국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분당으로 가나

최순실 사태에 내홍 확산

친박 사실상 해체 수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의 내홍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보수정당 분당(分黨)’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계파였던 친박(친박근혜)계가 사실상 해체 수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잠룡들이 표진한 비박(비박근혜)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당내 권력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 정당의 역사상 새천년민주당 등 과거 야권과 같은 분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995년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측근 의원 9명을 데리고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던 것이 ‘분당’에 가까운 탈당이자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였다. 1997년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의원이 만든 국민신당, 2000년 조순·김윤환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국민당,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한국미래연합 등은 실패 사례였고, 2008년 서청원 의원이 이끈 친박연대는 14석을 얻으며 나름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일단 비박 진영에서는 박 대통령은 물론 친박계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지만, 친박 진영에서는 “우리가 왜 물러나느냐”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 진영에서는 친박 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친박 진영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중도 세력과 정계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분당될 경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과 친노(친노무현)계를 배제한 나머지 세력의 통합을 통한 ‘중도정권’ 창출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집 나가면 시베리아’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분당 논의는 ‘찾단 속 태풍’이 될 것이라 관측도 만만치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논의하는 朴·安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골머리 않는 與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안철수, 국회 발언서 “대통령 하야” 거듭 요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3일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거듭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박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버려달라.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최

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있다”며 “지금 이 상황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돼 달라”면서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최순실표 내년 예산 반드시 삭감”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르·K스포트즈재단 사태를 통해 정부와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가 재확인된 만큼 법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와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더는 못된 짓을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 총 5200억 원”이라며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ODA 예산 520억원,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하면서 만든 14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에 곱감 빼먹듯 하나하나 빼먹으려 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들어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 온 유승민 “朴,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

전남대 초청 강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고해성사에 나서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지 않고 거짓 사과를 반복하면 끝장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해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한 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 자신이다”며 “‘결자해지’하란 말이 박 대통령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왜 민주공화국인가?’라는 주제로 이날 강연을 한 유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가 투표로 말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인이 행사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신성한 권리를 사인에게 넘겨버렸다는 의미에서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 사태로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 핵심가치인 정의를 무너진 것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면서 결자해지·진실규명·책임자 처벌·국가의 혁명적 변화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감동을



준 적이 없는 대통령이다”며 “또다시 거짓 사과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고해성사와 사죄로 감동을 주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대통령 하야’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진정한 사과와 검찰수사를 받고 그다음 문제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도전을 하고 싶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간접 시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